

■ 화제의 뉴스 ■

부동산펀드 '놀자·먹자'가 대세

올 들어 초저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부동산펀드 시장으로 들어온 멧돈이 특히 영화관, 마트, 쇼핑몰 등에 활발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부동산펀드가 실물자산으로 주로 편입했던 국내 오피스빌딩 투자가 크게 줄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투자가 이뤄지면서 투자물건 자체가 부족한데다 가격 상승으로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피스빌딩 투자 대부분은 해외 자산으로 대체되고 국내에서는 오피스빌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인 상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 가운데서는 특히 영화관과 계약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방식이 운용사들 사이에 인기입니다. 영화관은 대체로 계약이 장기인데다 대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들이 운영해 안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 영화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운용사들이 영화관 투자를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부동산펀드의 마트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마트 투자는 장기의 임차기간으로 인한 투자 안정성, 쇼핑몰 등의 사용 목적에서 오는 수익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내수경기 회복으로 장기적으로 유통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마트 투자 증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머니투데이 - 부동산펀드 '놀자·먹자'가 대세 \(2015. 9. 24.\)](#)